

문화산업정책의 정도(正道)

김문환

서울대 교수 · 미학

요즘 들어 이른바 문화산업이 부쩍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문화정책의 중심이 문화재정책에서 예술진흥정책으로, 다시 문화산업정책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우리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보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문화재정책이 근대화·산업화를 위해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저항들에 대처하려는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당시 대학생들의 탈춤운동은 이와 같은 문화재정책, 시멘트로 중무장한 유형문화재 중심 정책에 대한 저항의 셈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진 민족문화, 민중문화 부활의 요구가 비판정신의 함양과 어우러져 표출되면서 70년대, 80년대의 마당극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을 회상한다면, 문화재정책을 통해 얻어진 과거 지혜를 현대화하는 방식의 예술진흥정책으로 역점이 옮겨진 선진국과 우리의 사정이 달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민족문화 중흥을 내세우면서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한 군사정권의 문화정책이 예술의 창조성과 비판정신의 보호를 통해 우리 문화를 부흥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관변 문화예술인에 대한 자금배분을 통해 순치와 침묵을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는지도 분명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그후에 이어진 문화향수자 중심이라는 정책적인 초점 이동에도 허위의식이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각 지방에 문예회관을 만들고 매개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를 통해 문화인력을 보충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도와주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는 영화의 사례를 보아도 잘 드러난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예술이 된 것은 90년도 이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물론 이전의 영화가 완전히 무의미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자본·기술의 제약 속에서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화가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주장도 아주 무리하지는 않은 듯싶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술진흥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고 문화산업정책으로의 초점 이동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문화산업에 치중한다는 정책에 허위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정직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상품은 대체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느 정도 창조적인 성과를 다량생산 체제를 통해 양산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개인의 창조적인 계기를 활용하는 유형이다. 어느 경우나 문화산업은,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는 문화 또는 예술을 원천 내지 저장고로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문화산업정책에서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투자와 격려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문화를 이용하려는 발상이 엿보인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화재정책에서 예술진흥정책으로, 예술진흥정책에서 문화산업진흥으로 옮겨간다는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경험이 과연 일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회의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 제일주의에 시달려오다가 이제 문화마저도 경제품목으로만 인정하려는 풍토라면, 이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돌아보지 않은 활동이 오히려 문화발전을 위해 좀더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상당한 모순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특별취재/ 동서 고인쇄문화 심포지엄	2	고려의 금속활자 발명 - 손보기
	3	극동인쇄사와의 비교연구적 소고 - 앙리 장 마르탱
	4	중국·한국·유럽의 초기 금속활자인쇄술 - 판지성
	5	인쇄기술사의 여섯가지 쟁점 - 박성래
	6	우리의 고인쇄술 펼친 '인쇄문화' 잔치마당
저자 인터뷰	8	빛나는 우리나라 금속예술의 '흔'을 찾아 《한국의 금속공예》 펴낸 이호관 문화재전문위원
의견	10	'재고도서 처리방안'을 바라보는 각계의 의견 박기봉/허창성/이정일/김병준/최선호
특집/책과 함께 오르는 산	12	잊지 못할 산악 책 두 권 - 김영도 불거리 많은 보잘 것 없는 산 - 박원식
	13	"비로봉 대자연은 사람이 묻지 마소" - 정찬주 히말라야 오지가 지닌 신비한 매력 - 이정숙
	14	산에 오르는 여러 길 안내한 책들
	15	산을 지키는 산악전문 출판사
	16	산악인의 '정보 베이스캠프' 산악도서관
베스트셀러 다시보기	17	류시화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을 읽고 - 정효구
출판화제	18	한국문학의 성과와 한계 가능하는 평론집들 현장비평에서 거대담론의 비판적 검토까지
나의 학문과 책읽기	20	동서고금을 방황하는 우연과 인연 - 김기협 《용비어천가》가 이끌어준 《자치통감》의 세계
책갈피 산책	21	푸엔테스 지음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 송병선
	22	박해란 지음 《변경에서의 일년》 - 주영경
주제가 있는 책읽기	23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복잡성의 과학 - 최종덕
화보	24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행사
서평	26	이종호 외 《안동의 선비문화》 - 이장희 송정수 《중국근세향촌사회사》 - 전순동
	27	후설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 김영한
	28	북천 《사회생태론의 철학》 - 권혁범 차남희 《저항과 순응의 역사철학》 - 소순열
	29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 정병준
이 책 그 사람	30	《재미있는 음악사 이야기》 펴낸 신동현씨 《신문기자 때려치우고 웹 띄볶이 장사?》 펴낸 서광원씨
	31	《그림과 그림값》 펴낸 김재준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㉑

표지/ 가족과 함께 책방 가는 날
선포식이 열렸던 세종문화회관 앞
(사진 한준호)